

개선문 강의 녹취록

바존 브락

저는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 선생과 만나는 가이드라인, 또 백남준 선생에게 여러분께서 노출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백남준아트센터의 로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고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은 국경이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건물이 될 수도,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다면 질문도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까요? 특히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은 채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것이 합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학자, 예술가로서의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만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과학 철학에서는, 모든 연구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합리적이며, 더 솔직한 거죠. 40년 동안 문제를 연구한다면 그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으로 이어지지만 그 답은 결국은 이 질문을 일으켰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그것을 영원히 지속시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백남준아트센터 로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다른 질문으로만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 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답을 얻기 위

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는 답이 없고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고의 의미입니다.

이제 백남준 선생의 아방가르드적인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 선생이 뛰어난 아방가르드 예술가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아방가르드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정의는 우연히 모아진 정의이고 이해되지 않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더니티의 방향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가이드라인하에 있다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내용도, 분류도, 특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새로 생겨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거나, 부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것을 과거의 전통과 비교해 보고, 그 새로운 것이 우리의 문화와 연구분야 속에서 이제는 다 지치고 질린 과거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방가르드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통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통과 새로운 것과의 비교가 바로 아방가르드의 유일한 정의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개선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미지 18. p179] 백남준 선생은 이 작품 속에서 TV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개선문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특히 왕이나 장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승리는 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죠. 이 개선문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인 302년, 로마에서 건축된 개선문을 지칭합니다. 이 개선문에 사용된 TV에 나와 있는 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행동들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그 의미는 이 아래쪽의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INSTINCTV · DIVINITATIS · MENTIS · MAGNITVDINE. 결국은 신에 대한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에 대한 본능(instinctu divinitatis)을 가지고 그리고 열린 사

고를 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TV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에 있는 ‘신에 대한 본능’ 이라는 그 문구와 함께 도상학적인 유추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TV를 도상학의 전달자로서 사용하면서, 역사적인 실행들을 마치 대리석이나 돌에 새겨진 문양과도 같이 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으며, 단지 이 개선문에 보이는 사람이 기억상실로 인해 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TV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 자체가 기억상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TV를 아방가르드적인 미디어로써 사용하면서, 이제는 개선문의 논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백남준 선생은 예술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가 TV를 기계로 생각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계화가 아닌, 기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력과 기계의 새로운 단일체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 등이 바로 그러한 결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 작품의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문제에 다양한 시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TV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기술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여기서 ‘사용’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 예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은 하나의 매체가 되었는데, 모든 문화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술의 발명은 그런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사람들이 자신의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술과 과학이 생겨난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술과 과학은 시각에 대한 비판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으로 인한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상을 생각해 봄으로써 뇌로도 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증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증거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 증거를 채움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백남준 선생은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한 모든 역사적, 체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논제를 던지든지 그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형상화를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논리는 없습니다.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상화가 이미지화로 인해서 가능한데 그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지는 논거에 대한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금지입니다. 신에 대한 형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지로써만 채워질 수 있는 논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코나 마더웰 같은 미국의 유대인 화가들이 1950년대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미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신에 대한 형상화가 금지되었다는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것이었으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00년간 이미지를 창조해 왔으니까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림을 그려야만 바로 논거의 비판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우리의 눈은 미시적인 것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적인 것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시적인 것을 볼 수 없다는 명제를 비판할 만한 논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을 비판하는 방법은 바로 논거를 쫓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로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미디어와 과거에 우리가 질리도록 본 미디어를 대면시킴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찾고 전통에 대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방가르드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원후 4세기경에 개선문을 만들어 냈는데, 이 개선문 같은 건축물들은 이 당시의 기독교, 즉 초기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개선문에 대한 논리를 알아야만 했죠.

그는 새로운 미디어는 기계의 일종이고, 이 기계는 현대적이라는 일반적인 명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논거에 대해 급진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논거를 그 다음 차원에서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기계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를 전통이나 일상적인 것들과 대면시킬 때, 결국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문명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또 기술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대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면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방에서 합리주의라는 것은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간의 대면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비합리주의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것은 백남준 선생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대조와 대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학과의 대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충족시켜 주죠. 지금 오른쪽 앞쪽을 보시면 전통적인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다시 생명을 되찾을 때까지 있게 되는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제단의 아래쪽을 열게 되면 위에 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소리는 바로 부활의 음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백남준 선생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약에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미리 촬영해 놓았던 비디오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살아 있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를 언제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촬영했던 영상물이나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은 신학적으로 말하는 영구성, 혹은 영원성을 하나의 기계로써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기술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영원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르면서 이 영원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이 바로 이 언약의 충족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성의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신 분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지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아이들에게 보여 준다면, 이 할아버지는 크리스천들이 언제나 생각해 왔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백남준 선생을 아방가르드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개선문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상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는 과거와 전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미디어는 바로 두 개의 본질, 측면이나 입장에 대한 연결 고리, 즉 매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기독교 신앙과 삼위일체는 사실 믿음의 대상을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존재는 신이고, 어떤 존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과 사람, 그리고 제3의 존재가 있어야만 3위 일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존재는 바로 매체를 통해서 촉발되는데, 이것은 성령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신자라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백남준 선생도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했던 것이지요.

백남준 선생이 서방 세계에 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이해라는 측면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불교가 시작된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모더니티를 이해하는 것이 꽤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더니티라는 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원전 500년경에, 부처가 그의 사상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부터 모던해 왔으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역사상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백남준 선생은 퍼포먼스나 플럭서스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전통을 분리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정리했기 때문이죠. 한국사람, 일본사람, 중국사람 사이에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이면을 보면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집행부와 법무부가 있듯 모든 것은 다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공간이 공백으로 남았을 때, 캔버스가 흰색으로 유지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시즘, 전체주의 정권하에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것에 노출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과학과 예술이 현대화되면서 우리는 이제야 실질적으로 삼위일체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누군가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두뇌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도의 표시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신학을 충족시켜 줍니다. 기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영적인 힘을 물질적인 현실로 옮겨 놓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신학적인 언약들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없이 만들어졌던 언약들을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의 기술로 인해서 충족이 되고 언약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측면은 개선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 준 것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 앞쪽에 보시는 이 글, 즉 ‘신에 대한 본능’이라는 글은 우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불교철학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을 하나의 매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구성이나 부활에 대한 음악, 혹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백남준 선생이 제로 그룹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구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졌고, 살아 있는 생명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확장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거나 가족 내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나 한 명의 사람으로

서 계속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바로 출발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줄을 쪽 굿는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선만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상하를 구분하고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 땅과 하늘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출발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 뭔가 계속 재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현대의 이념들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든, 침대에 누워 있든, 이를 닦든, 안 닦든 결국은 다시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음악과 예술도 다 먼지로 돌아갈 텐데 왜 다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재앙이 일어나면 다 끝나 버릴 텐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출발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비판만이 낙천주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낙천적이기 위해서는, 즉 내실 있는 낙천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랄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비판은 결국은 이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은 테이블의 형상화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이라는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시작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출발은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영철 관장님같이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낙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천주의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신랄한 비판과 사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진정한 낙천주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론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준 선생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달

성했습니다. 웃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신랄한 비판과 내실 있는 낙천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남준 선생의 도움을 받아 케이지를 그의 새장으로 부터 놓아 주었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새였죠. 아시아에서는 그 노래하는 새를 스즈키의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스즈키는 서구 불교의 헛간을 만들어 낸 셈이죠.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남준 선생이 케이지가 스즈키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 화를 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만약 가족들이 동굴에서 배고파한다면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 와야겠죠. 동굴에서 머릿속에만 있고 있으면 동물에게 잡아먹히거나 뱀에게 물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실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측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예측을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즉, 가장 극단적인 위험을 예측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일을 천 번씩이나 직접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지요.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만일 행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테니스 선수는 상대방이 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다면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서 예측하고 행동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랄한 비판을 거친 낙천주의를 통해서 가능하죠. 예측하지 않은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비평의 기본입니다. 모든 예술가들과 과학자들, 이론가들은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낙천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신랄한 비판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 즉 뒤셀도르프에 있었던 제로 그룹의 이름이 ‘제로’ 인 것은 바로 그들이 다시 출발하고 또다시 출발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화가가 매일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화가는 단 하나의 누드나 하나의 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누드화, 여러 개의 꽃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딱 한 번 그린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다시, 또다시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재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재출발을 통해서만 자신이 화가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고, 재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제로는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신문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장군이였다.” 라는 승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잊혀진 것과 기억상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구적입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드릴 측면은 바로 작곡가로서의 측면입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개신문 앞에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홀리건들이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음악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의 지평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백남준 선생은 바로 소리를 통해서 음악을 노출시키는 시리즈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음악을 함께 사용했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악가들은 음악의 느낌, 의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 자체는 들리기 전에 먼저 노출되어야 합니다. 쇤베르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음악을 음악가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상화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념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모두 뒷모습의 초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지휘자를 볼 때 뒷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쇤베르크는 37개의 초상화에서 모두 뒷모습만 그렸습니다. 다른 앞모습의 초상화들도 있었지만, 눈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고 들리기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귀에 의한 눈에 대한 비판이고, 눈에 의한 귀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출은 노출된 것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더니즘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이나 음악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누군가가 그것에 의해서 감명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 그 자체는 그냥 캔버스 위에 먼지가 쌓이고 페인트가 쌓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생생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술 작품을 보는 사람이 미술 작품과 대면하고서 반응을 할 때 생생해집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물질에 의해서도 누군가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백남준 선생과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르네상스 시대의 배우들은 조그래퍼(zografos)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그래픽과 같이 살아 있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여성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주죠. 출산은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여성과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즉 ‘생명을 만들어 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술품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백남준 선생의 시대, 즉 1950, 1960, 1970년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해도 그것을 듣고 보면서 이해할 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술가는 대중을 교육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이 없다면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라는 개념, 즉 관객의 전문화, 소비자, 유권자의 전문화, 그리고 환자들의 전문화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유권자, 시청자, 청취자들을 위한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전문적인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여야만 의사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보건 시스템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후반부터 청중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1968년에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청중 가운데 나의 파트너가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청중이 없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 청취자,

관중,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전문화, 유권자들의 전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중국에서 명상이나 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스승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 한 학생이 위선적으로 “아, 이제 나는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께서 배웠지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대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된다면 제가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0년 후에 돌아온다면, 스승은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겠죠. 그 학생이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스승은 “이 멍청한 녀석아! 그건 배를 타고 할 일이지 왜 네가 물 위를 걷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통한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고 쓸모 있기 위해서는 실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실망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교와 상상적 풍자에 의한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백남준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계셨습니다. 백남준 선생의 모든 행위는 이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관중을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DVD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DVD와 논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가난하셔야만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DVD나 자료를 가지고 스승이자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높은 교수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학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교육시켜서 계속해서 학생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스스로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레비나스도 많이 인용되었는데요,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낙천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전, 두려움, 위험, 그리고 정치적인 체제나 전쟁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비평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대면이 이루

어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만 낙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아방가르드 예술가,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미술학도들은 단순히 미술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계획안만 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청중이 되어서 청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대중과 청중은 계속 움직이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 내에서는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의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백남준 선생처럼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고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세 명밖에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 보이스입니다. 다른 한 명은 물론 백남준 선생이고요. 세 번째 인물은 프리츠 쉬베글러입니다. 모든 측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백남준 선생의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노출을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백남준 선생으로부터 더 이상 힌트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힌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